

공사장 지역자재 · 장비 사용 확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협조 · 지역인력 채용 등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살리기 3대 역점사업 추진

전주시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인력 채용 등 지역인력 채용 여부 등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초 신설한 하도급관리팀을 통해 전주지역 300세대 이상 대단지 공동주택 건설현장과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협조 △지역 건설자재와 장비 사용 확대 △지역인력 채용 등 지역

건설산업 살리기 3대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관리대상은 공동주택 건설현장 15개소와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6개소 등 21곳으로, 전주시 하도급관리팀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와 합동 방문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일감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장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하도급 예정공사에 대한 발주계획서 요청 △하도급 입찰시 협력업체와 지역업체의 동등한 참여 보장 △저가하도급 지양 등이다.

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의 자본·기술력 한계 등 진입을 불식시키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사업계획서인·건축허가 단계부터 하도급계획서 제출 권장 △착공신고시 하도급을 확인해 이행 권고 및 독려 △공사시 하도급 수시 확인 등을 통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민간 대형건설공사를 외주업체가 시공할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체와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 배정토록 하고 지역자재 80% 이상 사용을 내용에 포함한 협약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건설산업 살리기에 동참하는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사업승인과 착공, 설계변경 등 인허가 관련 업무의 민원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주는 등 협력을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와 (주)포스코건설·(주)태영건설·(주)광신종합건설·현대비에스앤씨·(주)유담건설 등 전주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오피스빌을 시공중인 민간건설회사와 공사 지역자재를 80% 이상 사용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 배정토록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종업 시 생태도시국장은 "지역건설업체들의 일감확보를 위해 시공사 본사, 현장 관계자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관련기관과 민간 대형건설사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예수병원, 호남권 종합병원 위암 · 유방암 평가 1등급

예수병원이 호남 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위암 · 유방암에서 암 치료를 잘하는 1급 병원으로 평가를 받았다.

지난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의원급 이상 기관(위암 204곳, 유방암 18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위암 · 유방암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별 등급을 종합한 결과, 위암 · 유방암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서울권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 호남권 예수병원을 포함한 86개 기관이다. /김영태 기자



23일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부안군의회에서 제245차 월례회를 갖고 새만금 담수호 해수 유통계획 수립 등을 촉구하는 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전주시의회 제공>

“새만금 해수유통 · 위도~식도 간 연도교 설치”

전북 시군의회의장협, 부안군의회서 건의안 채택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가 새만금 담수호 해수 유통과 위도~식도 간 연도교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3일 부안군의회에서 제245차 월례회를 열고 “새만금 방조제 축조로 새만금 담수호 수질이 악화되어 물고기 폐죽을 현상이 매년 발생하는 등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새만금 담수호 해수 유통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어, “방조제 축조 이후 새만금

내, 외측의 생태계 단절로 주요 어종이 크게 감소하고 해수욕장 모래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해수욕장 모래유실 방지 대책 및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한, “위도가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급격한 어획량 감소와 기상여건에 따른 내륙과의 잦은 고립으로 생필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민편의를 위한 연도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는 “연도교 설치의 사

업타당성을 경제성, 효율성에 치중된 기준보다 주민의 생존권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등의 다양한 가치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술 회장은 “새만금 생태계 보존을 위해 새만금 담수호의 해수 유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위도~식도 간 연도교 설치가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조합원 금품 제공’ 입실 A 조합장 구속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기간 동안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농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전북 입실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조합장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조합장 측근 B모(48)씨와 마을 주민 C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조합장은 지난 3월 10일 B씨 등을 통해 조합원 12명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조합장으로부터 200여만 원을 전달받은 B씨는 입실군 관촌면 마을 주민 C씨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돈을 뿌리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C씨는 A조합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조합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강석훈 기자

책임은도시협, 고창 등서 우수 독서프로그램 운영

국고보조금 1000만원씩 지원받아 6월부터 7개월간

전국책임은도시협의회(회장 김승수 전주시장)는 대한민국 독서문화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회원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수 독서 프로그램 공모사업’ 대상으로 7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그램은 △고창군 : 책 그리고 인문학 △공주시 : 꽃 같은 나를 만나는 도서관 발걸음 △구로구 : 구로구, 책이 필요한 순간 △안산시 : 책으로 만나다! 독서로 공감하고 연극으로 소통하기 △안주군 : 낭송의 즐거움, 낭독의 재발견,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연계한 도서관 속의 환경강연 △울진군 : 시하지 않은 나의 이야기 책 △증평

군 : 농촌4촌 이웃4촌의 슬기로운 도서관 탐구생활 등이다.

선정된 7개 지자체는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1000만원씩 지원받아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자치단체별로 강연, 공연, 악기, 탐방, 토론 등 다양한 방식의 우수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와 사업결과 및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또, 8월 30일과 31일에는 제6회 ‘대한민국독서대전’ 개최지 청주에서 초청 강연 및 회원 기초자치단체의 독서문화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이루어진 ‘1박2일 실무진 워크숍’도 진행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우선 허가 대상자 모집

저소득 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전주시는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전주시 산하 공공시설의 자판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허가 대상자를 공개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16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소 둔 만20세 이상 세대주 중 장애인, 만65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새터민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

운영 장소는 시가 지난 4월 전주시 공공시설 내에 운영중이거나 설치 예정인 자동판매기에 대해 일제 조사를 통해 조사된 총 66대(26개 기관, 66개소)이다.

접수는 시청 홈페이지(www.jeonju.go.kr) 또는 각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저소득 계층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이 사업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 가능한 주위 분들에게 많은 홍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군산 말도항서 11t 어선 침몰 선원 전원 구조대

군산 말도항에서 어선 1척이 침몰했지만 선원 7명이 전원 구조됐다.

23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3분경 군산시 옥도면 말도항에서 근해통발 어선 A호(11t, 승선원 7명)가 좌주되면서 침몰했다.

A호에 타고 있던 선장 최씨 등 선원 7명은 구명조끼를 착용, 말도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호의 연료탱크와 에어벤트를 봉쇄하고 해양오염에 대비해 주변에 펜스형 흡착재 84m를 설치했다.

해경은 A호가 닻을 내리는 과정에서 선체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석훈 기자

전주 한마트서 화재 발생

22일 오후 1시 6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마트에서 불이나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327㎡ 규모 마트 절반과 상품 등이 타 소방서 추산 8천 5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마트 내부에 손님이 없었으며, 직원 1명은 곧바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살수차 등 장비 14대와 인력 40여명을 동원해 불을 껐다. /강석훈 기자

‘전혈 순환 종양세포 분리 기술’

전북대병원 이선영 교수 논문 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방사선종양학과 이선영 교수의 종양세포 분리기술 관련 논문이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고 23일 밝혔다.

발표 논문은 ‘전혈에서 순환하는 암 세포를 분리하는 기술 Technologies for circulating tumor cell separation from whole blood’에 관한 것으로 종양 관련 국제학술지인 J hematology & Oncology (SCI지널, impactor factor 7.333)의 2019년 5월 온라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주관하는 이공계 기초산업연구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혈중 암세포 분석을 통한 여성암 마커 개발 및 활용’ 연구로 헝가리 채창훈 교수(Semmelweis University)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혈액내 존재하는 암을 진단하는 표준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암 환자 혈액내에 존재하는 암 세포 진단기술에 대한 표준화와 다양한 기술의 흐름을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암 환자의 진단 및 암의 전이를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기

술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현재까지 암환자의 혈액내 존재하는 암 세포에 대한 방법론적인 측면과 정확성, 표준화 기술에 대한 논의가 없기 때문에 이번 논문의 결과와 내용은 암 연구 과학자, 병원 암 전문 수술의사 관련 제약 및 생명공학 기업에 매우 가치 있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말초 혈액내 순환 종양세포 분리 기술은 혈액내 존재하는 암 세포를 찾아내어 암의 전이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암의 치료를 위한 암세포의 돌연변이 연구와 환자 맞춤형 항암제 처방 기술과 혈액내 존재하는 암세포와 원발암 세포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암 발생 메커니즘연구는 암 치료제 개발 연구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선영 교수는 추후 CTC(순환종양세포) 연구를 통해 얻은 돌연변이 유전자의 항암제개발을 위한 PDX 마우스 모델 연구를 통한 항암제 신약 개발연구에도 국제 공동연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 이선영 교수는 2018년 자궁의 유방암종(Ewing Sarcoma)환자에서 말초혈액내 순환하는 암세포의 유전자 성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SCI급 국제학술지인 Experimental and Therapeutic Medicine에 게재했다. /김영태 기자

한옥마을 전역 야경 감상 경관조명 설치

내달까지 2억3000만원 투입

여행객이 전주에 하루 더 머물도록 만드는 ‘전주한옥마을 하부 프로젝트’ 일환으로 전주시가 한옥마을에 밝고 걷고 싶은 명소로 만들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총 2억3000만원을 투입해 한옥마을 전역에 야경조명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한식당장 700m 경관등 신설 △태조로 청사초롱 62개소 재정비 △은평로 및 오목대 전통격자등 신설 △정자 및 함터 보강 △눈부심 방지장치 270개소 보완 △전주천동로 너울등 설치 △골목길 보안등 설치 공사 등이다.

특히, 손님을 환영하는 마음을 뜻하는 청사초롱등은 야간에 주변 상가 조

명 점멸 시 음영구역이 생겨 아슬하게 보였지만 이번 조성사업으로 여행객과 시민들에게 음영 없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됐다.

또한, 한옥마을 외곽지역에 위치한 향교길 주변에는 각종 문화시설의 한식전통 담장에 처마 등이 설치돼 전주한옥마을의 고즈넉하고 은은한 분위기가 돋보이게 된다.

이외에도, 시는 전주한옥마을의 주요거리인 태조로와 은행로에 있는 함터에도 경관조명을 설치한다.

시는 향후에도 경관조성을 지속적으로 보강함으로써 전주한옥마을 내 주요도로뿐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고 어둡다는 이미지가 강한 골목길도 따뜻한 이미지로 바꿀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내년 5월까지 금암분수정원 조성키로

금암광장 교차로 옛 분수대가 복원되고 이곳에 정원이 만들어진다.

전주시는 오는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총 9억원을 투입해 천만그루 정원도시의 상징정원이 될 금암분수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는 전주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한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7기 첫 결재사업이다.

시는 앞서 추진된 금암광장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불필요해진 이곳 중앙교통섬을 팔달로 상가 쪽으로 조정해 주요간선도로인 기린대로를 직선화 했

다.

팔달로 상가 쪽으로 옮겨지는 교통섬에는 옛 금암분수대를 복원, 빛깔을 이용한 분수 정원을 만들어 전주한옥마을 구도심의 상징관문으로 만들 계획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곳 금암분수정원에는 분수, 도래도래샘터, 원형벤치, 경관조명 등이 설치되고 온갖 종류의 나무가 식재된다.

시는 실시설계와 추정예산 확보를 거쳐 올 하반기에 공사에 돌입할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모두 마무리 된다. /송효철 기자

음란물 8400여개 유포 50대 2심도 ‘징역 1년’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 8천 400여개를 유포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시 법원 제1형사부는 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모(50)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8천 402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2차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

월간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면서 7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영상 파일의 공유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파일인 토렌트 파일을 게시했을 뿐, 음란한 영상 자체를 배포하거나 전하지 않았다”면서 벌리요해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토렌트 파일을 올린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직접 전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